

교수-학생 관계의 새로운 방향

박 아 청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교육에서 교수는 무엇보다도 특정 학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그 행위, 가치판단의 규범이 되는 모델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나아가 교수는 연구실, 강의실에서 유일한 리더이고, 학문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영역에 관해서도 리더일 것이 기대된다.

교수 경험이 전혀 없는 천재학자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오류는
학생들이 들은 것은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 E. L. Thorndike, *Education, a first book*, 1912. -

I. 들어가는 말

대학교육에도 국제경쟁력이란 말이 등장하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의 제공이 대학에게 주어진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는 요즈음 각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각 대학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수법을 개발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입학생의 감소현상은 대학으로 하여금 보다 높은 교

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자구책으로서도 교수방법에 대한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은 초·중등 교육에 비해 교육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연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수방법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수채용에 있어서도 전공영역에 대한 연구업적과 학위 등과 같은 학문적인 능력이 채용조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가 교수

로서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학생지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직에 대한 정신적 자세와 교직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겪지만, 대학교수는 교수가 되는 훈련이라고는 실제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연구하는 방법은 직접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수방법은 구체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대학의 역사를 보아도 대학에서는 도제교육으로 학문하는 것만을 배우지 학문의 내용을 교수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배우는 일은 없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교수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의실, 연구실에서의 교수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결국은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방법이나 방식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궁극적으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인간관계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에서의 인간적인 변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이다. 오늘날 사이버강의가 학습내용에 따라서는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대면(對面)강의보다도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이버강의는 많은 제한점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수방법 개발과 아울러 교육적인 교수-학생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 교수와 학생 인간관계의 특징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와의 인간관계를 매개로 하는 교육이상의 실현을 말한다. 교육이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의 현실에 기초를 두고 교육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이지만, 교육현장 그것은 교육이상에 관계없이 항상 가르치는 자와 학습자가 엮여 가는 인간관계에 의해 운영된다. 학생들이 강의실이나 학교에서 매일 '보람'을 느끼고, 생생하게 적극적으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실로 이와 같은 교육적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수와 학생과의 교육적 인간관계의 본질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한마디로 인간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관리자와 피관리자, 의사와 환자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각기 특유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 특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의 성과를 얻기 힘들다. 교육실천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다. 교수와 학생과의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의 본질을 밝혀 그것에 충실할 때 교육의 성과도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칭 대명사 3인칭 He로 대표되는 관계이다. 즉, '나와 그', '나와 그들'의 관계이다. 이 인간관계는 심리적으로 거리(심리적 거리)가 먼 것으로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계이다. 두 번째는 2인칭 You로서 대표되는 인간관계로 '나와 너'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으로 매우 밀착한 관계로 나의 영향이 직접 너에게 미치고, 너의 있는 그

것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상호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정열과 의지가 생동적으로 약동한다. 세 번째의 유형은 나의 '나 자신' I, Myself에 대한 대결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것은 나의 자아의 내면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이다.

예로 인간의 '죽음'이란 테마를 놓고 이에 관계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기로 하자.

첫 번째, '그의 죽음'이라든가, '그들의 죽음'이란 것은 뉴스에서 보는 인물의 죽음이라든가 한국인의 암으로 인한 사망통계와 같은 것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두 번째, '너의 죽음'은 나의 부모의 죽음이라든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죽음 또는 나의 친구의 죽음으로 그것은 도저히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뇌'가 일어나고 인간

성이 노출되며, 적나라한 인간관계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정(情)과 열(熱)이 생겨나고 생성과 발전이 있다.

세 번째, '나 자신의 대결'의 경우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타인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대결하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든가 하는 절대자이고 거기에는 결의라든가, 신앙이라든가 하는 것 이외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이다.

죽음을 예로 들어 이 세 가지의 기본적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대결의 자세를 밝혀 보았는

데, 이것은 교육자가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때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예컨대, 교육정책이나 교육통계, 교육평가 등과 같은 문제는 첫 번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문제이고, 30명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힘든 나날의 교육활동은 두 번째의 과제이며, 교수가 교육자로서 갖고 있는 각자의 자부심과 신념은 세 번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생각하여 볼 때, 교육을 실천할 때 교수와 학생과의 인간관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제2의 인간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I and You'라는 개인적 인간관계에도 얼핏 보아도 '부모와 자신', '관리자와 피관리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종류에 따라 그 본질을 생각하여 보면

각기 다른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수준에서는 도저히 논의할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교수와 학생'이라는 인간관계는 과연 어떠한 특질을 갖고 있을까? 우선 생각되는 것은 이 관계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매개가 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양자의 넓은 측면에 있어서의 인격이 접촉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격의 넓은 면에서 긴밀히 접촉함으로써 상대를 계발하고 지도해 가는 인간관계는 아마도 교육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또 하나는 정신치료에 있어서 치료의사와 환자(내담자)와의 관계 정도일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수방법 개발과
아울러 교육적인 교수 - 학생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지니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성장시켜 가기 위한 매개자이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과도 같이, 학생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말이 갈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하고, 성장해 가기 위한 의욕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러한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마음의 접촉, 또는 인간적인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특히,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교육시켜야 할 오늘의 한국 대학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교수의 역할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교수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사에 비해 인간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책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학문의 전달에도 궁극적으로 인간교육에 대한 배려 없이는 그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에 아직도 대학사회에서 “대학에서는 스승이 필요없고, 학문의 전수자가 필요할 따름이다.”라든가 “학생들은 교수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결코 교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교수와 학생 인간관계의 특질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라 생각된다. 진정한 학자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교수 역시 스승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교수와 학생 인간관계의 특질이 있다.

특히, 오늘 우리들의 대학에서 맞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면에서 정신적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교수들은 학생과

의 관계에서 건강한 정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쳐 여러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활에는 학문적 성취와 자신, 대인관계에서 수많은 도전거리들이 있다. 그러한 경험들이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더 나아가 장기화되고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지각되면, 무력감이나 우울, 긴장감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문제들을 알아본 연구에 의하면, 주로 환경적 요인, 정체감 형성, 대인관계, 학업 및 대학공부, 진로 및 취업의 문제, 가족 문제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정체성 형성의 발달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학입시라는 현실적 과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됨으로써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 과제를 대학 시기로 유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에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비로소 탐색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라는 구체적인 목표하에 생활의 많은 부분이 학교, 교사, 또는 부모에 의해 계획되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며 이에 익숙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스럽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넓은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스스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상대를 선택하고 적극

적으로 접근하며 대인관계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이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속에서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학이라는 변화된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 발달과업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교육에서의 정신건강이란 실로 이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건강한 정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적인 의미는 교육지도라고 하더라도 무슨 특별한 정책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성장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교수자가 '건강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자.'는 것에 마음을 쏟는 자세, 그것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 전에 연구된 것이지만 초·중등교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신건강적 입장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 있다. 학교 교사들에게 수업 중에 문제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행동목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고, 또 어떠한 행동이 교사가 볼 때 심각한 문제인지를 평가하게 하였던 바, 학교 규칙을 잘 따르고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간다는 이른바 교사들이 무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반항, 계

름, 난폭, 학습부진 등)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으며, 학생 자신의 정서적 또는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행동(혼자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 발언이 적은 것, 친구가 적은 것 등)은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정신건강적 입장에서 볼 때, 교사에게 있어서는 매일 지도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학생, 이른바 친밀감(rapport)을 느낄 수 없는 학생이야말로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이 적은 것', '친구가 없다' 등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실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반하여 '반항', '게으름', '학습부진'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학생은 분명히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데 어려운 학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도 교사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항이라든가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성장시켜 가기 위한 매개자이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과도 같이,
학생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하고,
성장해 가기 위한 의욕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러한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마음의 접촉, 또는
인간적인 만남에서 자연히 이루어진다.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 소통성도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사와 소통이 있는 한, 적어도 반항을 협력으로, 거부를 능동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이 갖는 참된 효과가 아니겠는가? 교사와의 사이에 마음의 소통이 결핍된 학생들은 비록 교사나

학교에 적극적으로는 애를 태우게 하지 않을 지라도, 지도의 가능성이 닫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제시한 연구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적 지식의 결여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대학교육에 관계하고 있는 자에게도 중요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학생들 자신에 결함이나 이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아가 아닌 것이다. 흔히 말하는 문제가 있는 학생은 조금만 못해도 정상적인 학생보다도 교육지도상 필요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수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학생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수 역시 단순한 학문지도에 그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심신의 건강이란 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심신을 육성한 다음에 학문지도가 쌓여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대학생의 정신 장애나 문제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육아, 교육에 '건강한 마음'을 키운다 하는 배려가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학생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만큼 이들에 대한 지도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Ⅲ. 교수 자신의 정신건강

그러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고려할 때 교수에게 어떠한 점이 과제로서 부각될 것인가?

첫째로, 정신건강을 살리기에 적합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이란 어떠한

것인가, 정신건강상 원조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또 그런 학생을 어떻게 발견하고 지도하는가와 관련된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로, 매일 교육의장에서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미치고 있는 교수의 심리에 보다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만일, 교수가 어떤 측면에서든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결코 건강한 교육장면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수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교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게도 정신건강은 중요하겠지만, 교수는 직접 학생의 마음에 부딪치고 그들의 육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자신의 정신건강은 어떠한 직업의 경우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특히 교수의 경우는 단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직책상 마음이 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습자가 어릴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 심하다. 어떤 클래스나 그 특유한 색채와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그 특색을 이루고 있는 중심은 바로 그 클래스의 담당자와 학생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의 운영방식과 직결된다. 예컨대, 서구의 수평적 문화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간격이 없이 스스럼없이 발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예사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어딘가 어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수직 문화의 틀에서 정착되어 온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들은 초·중등학생들에 비해 자아가 발달했기 때문에 교수들의 성격에 학생들이 영향

을 받는 일이 적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의 정신건강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교수직은 정신적으로 피해 또는 어려움을 받기 쉬운 불리한 직업인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교수의 행동 하나 하나에 간섭을 하며, 다른 일반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가 인간적인 가치로 보면 훌륭한 것은 틀림없으나 교수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러한 기대에 맞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교수직이란 학생들의 성장을 원조하고 이성적인 인간에 가깝게 가도록 하는 일이다. 당연히 교육의 이상,

인간적 가치의 실현과 같은 이상이 문제가 되게 마련이다. 교육논쟁의 거의 대부분이 이념에 있는 것을 보아도 다른 직업 분야와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수는 크든 작든 이상론자이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일에 정열을 쏟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의미에서 냉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교수는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

셋째,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각기 독립한 자유업이라고 부른다. 수십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의 손에 맡겨진다. 이 점은 환자를 맡은 의사, 재판에 관한 진행상의 전 책임을 떠맡은 변호사 등과도 비슷하다. 이들 직업은 조직 가

운데의 한 세포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방식에 따라 자주적으로 일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사는 실패하면 환자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곧 나타나고, 변호사의 경우도 잘못하면 소송에 진다고 하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제재가 보인다. 그러나 교수는 학생의 육성에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가 곧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그러므로 교수는 실수를 해도 곧 눈에 띄지 않는다. 동시에 노력과 열정을 다 쏟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수란 입장은 육체적으로는 모르는 사이에도 정신적으로는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교수의 경우는 어떠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학생, 교수 자신, 대학도 다른 어떤 경우 이상으

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숙명에 놓여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의 정신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 역시 단순한 학문지도에
그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심신의 건강이란 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심신을 육성한 다음에
학문지도가 쌓여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IV. 교육적인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대되는 교수의 의식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인간관계의 바람직

한 모습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수에게 갖추어야 할 의식 또는 마음자세를 지금까지 연구된 전문직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교수는 모름지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느끼고, 자신을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로 보며, 자신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 학부모, 행정가 또는 이웃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으며, 언제나 필요할 때에는 따뜻한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타인과 넓은 의미에서 동일시하며 스스로를 인류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깊고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둘째, 그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과업, 즉 교수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직도 하나의 다른 직업과 같이 생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직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교수의 인간성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다른 직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교수의 임무는 단순한 직업이나 노동이 아니라, “성(誠)과 열(熱)에서 이루어지는 혼(魂)과 혼의 대화요, 인격의 부딪침이요, 정성과 정성의 호응이요, 정열과 정열의 만남”인 교육의 매개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다. 교수직에서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교수직에 비전을 갖고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교수를 학생들은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교수는 타인도 자기처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도 자신들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

며, 위기에 처했을 때 능히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을 신뢰할 수 있으며, 타인의 행동을 통일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며, 인간이란 자기 환경과 대처할 때 창의적이며, 역동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소유하고 있는 교수여야 한다.

V. 맺는 말

경쟁력이 있는 대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수방법은 보다 근원적인 교수와 학생의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대학교육에서 교수는 무엇보다도 특정 학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그 행위, 가치판단의 규범이 되는 모델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나아가 교수는 연구실, 강의실에서 유일한 리더이고, 학문영역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영역에 관해서도 리더일 것이 기대된다. 대학
교수

박아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일본국립오사카대학교 인간과학부에서 교육심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계명대학교 사범대 학장,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아이덴티티의 탐색』, 『자기의 탐색』, 『정체감연구의 전망과 과제』 외 다수가 있다.